

충남경제의 변화와 과제

목원대학교 박 경

I. 충남 경제의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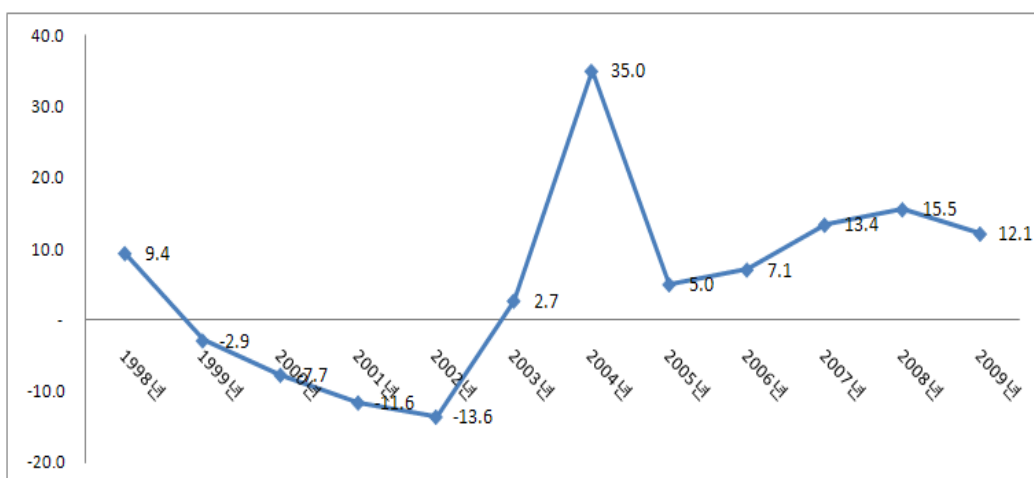
1. 경제규모

- 충청남도 면적은 8,600.5km²로 전국토의 8.6%, 인구(2010년)는 200만명으로 전국 4.1%
- 2008년 중 지역내총생산(GRDP)은 58.2조원으로 전국 5.6%
- 산업별 비중(2008년 GRDP 기준)은 제조업 47.0%, 서비스업 37.4%, 건설업 9.2%, 농림어업 6.4% 등의 순
- 민선지자체가 출범한 1995년에 비해 GRDP는 3배 가까운 규모로 커지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p(4.2%→ 5.6%) 상승(자세한 것은 부록 표 참조)

2. 충남의 인구 변화

-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인구 증가
 - 충남의 순전입인구(전입인구-전출인구)의 규모는 2003년 이후 계속 정(+)의 수치 기록
 - 특히 아산, 천안 등 충남 북부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

<그림 1> 충청남도 내 순전입인구 규모변화(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임재영, 2010에서 재인용)

3.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동적 성장 시현

1) 전국 1위의 성장률

○ 충남 경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국적인 저성장 기조하에서도 충남 경제는 7~9%대의 고성장을 시현

<표 1> 시도별 지역총생산의 성장률(%)

시도별	2007	2008	2009	2000-2009	2005-2009
전국	5.6	2.7	0.8	4.6	3.7
서울특별시	4.4	2.9	0.9	3.6	2.9
부산광역시	4.8	1.2	-1.8	3.4	2.1
대구광역시	4.6	1.3	-4.1	2.4	1.2
인천광역시	7.4	1.7	-0.4	4.4	3.8
광주광역시	3.5	-0.8	0.1	4.0	3.1
대전광역시	3.1	1.3	0.2	3.9	2.1
울산광역시	4.2	0.8	-1.4	3.3	1.8
경기도	6.1	4.2	1.3	7.2	5.9
강원도	4.7	0.9	0.0	3.3	2.3
충청북도	5.8	2.0	4.5	4.4	3.3
충청남도	7.6	7.0	9.2	8.9	9.2
전라북도	5.6	1.4	1.0	3.3	2.9
전라남도	6.7	1.8	1.6	3.0	2.7
경상북도	8.7	0.8	-3.4	4.9	2.3
경상남도	5.4	4.8	-0.6	4.3	3.4
제주도	6.4	-3.7	4.9	4.1	2.0

<표 2> 전국 대비 시도별 성장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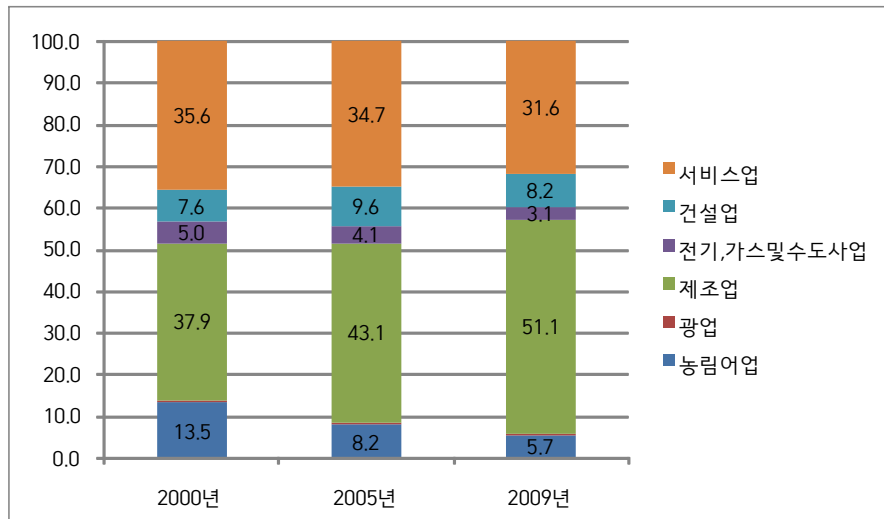
구분	2000-2009 성장률 기준	2005-2009 성장률 기준
전국 평균보다 3%p이상 높은 그룹	충남	충남
전국 평균보다 2%p이상 높은 그룹	경기	경기
전국 평균보다 1%p이상 높은 그룹	-	-
전국 평균보다 1%p이내	경북	인천
전국 평균 -1%p이내	인천, 광주, 대전, 충북, 경남, 제주	서울, 충북,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전국 평균 -2%p이내	서울, 부산, 강원,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대전, 부산, 제주
전국 평균 -3%p이내	대구	대구

2) 고성장의 요인

○ 충남지역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

- 제조업의 비중이 2000년 37.9%에서 2009년 51.1%로 크게 증가

<그림 2> 충남 산업구조의 변화(단위 %)



○ 1995년 이후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문이 제조업

- 제조업의 GRDP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 후반 53.5%에서 2000년대 전반 63.7%, 그리고 최근(2007-2009년)에는 73.8%로 상승하여 여타 산업을 압도
- 특히 반도체, 영상장비, 자동차 부문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

<표 3> 충남의 산업별 GRDP 성장기여율¹⁾

	(%)		
	1995 ~ 2000	2001 ~ 2006	2007 ~ 2009
농 립 어 업	6.0	0.3	5.5
광 업	0.2	0.1	0.4
제 조 업	53.5	63.7	73.8
전기·가스·수도사업	11.0	6.4	7.4
건 설 업	-1.1	9.2	4.5
서 비 스 업	30.5	20.3	8.4

주 : 1) 산업별 기여율=(산업별 GRDP 변동분/전체 GRDP 변동분)×100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 특히 수도권 인접성, 교통의 편리성 등 유리한 입지조건을 배경으로 국내외 기업의 유치의 활성화가 제조업 성장을 견인

- 외국인투자 유치액은 2000년 2.6억달러에서 2007년 12.4억달러로 급증
- 국내 기업유치 건수도 2000년 400건 수준에서 2010년 683건 수준으로 증가

<표 4> 충남의 외국인투자 유치¹⁾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 수	47	38	41	26	42	70	52	8
유치액(억달러)	2.6	4.9	5.8	7.0	12.0	3.3	13.7	12.4

주 : 1) 신고기준 자료 : 충남도청(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08에서 재인용)

<표 5> 충남의 국내 기업유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건 수	394	632	860	665	482	548	495	1,004	855	817	683

자료 : 충남도청(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0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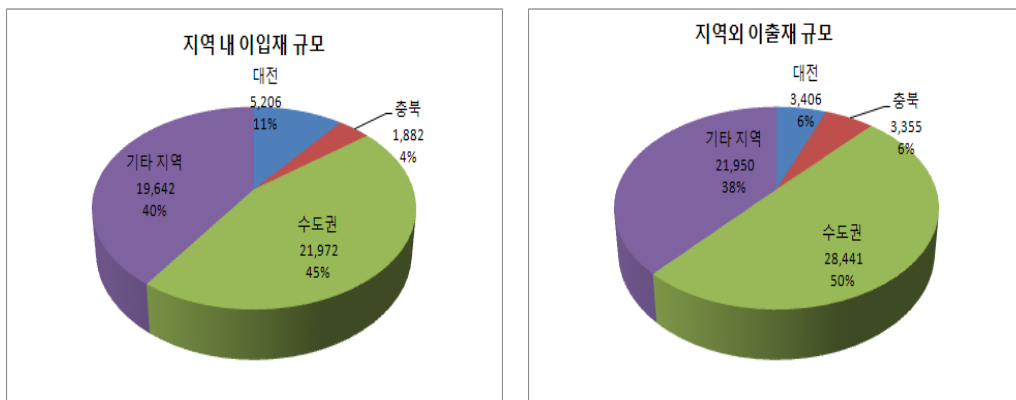
II. 충남경제의 특징

1. 수도권 의존 경제

1) 외부의존도가 높은 충남경제

- 충남 전체 생산의 37.2%가 타지역으로부터 이입되고, 43.7%가 타지역으로 이출되는 외부의존도 높은 경제구조를 형성
 - 이 중에서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이입되는 규모는 전체 이입규모의 45%로, 충청권내의 충북(4%)과 대전(11%)보다 훨씬 큼.
 - 전체 지역 외 이출규모 중에서도 수도권 지역으로 이출되는 규모는 약 50%에 달함.

<그림 3> 2005년 기준 충남 지역경제의 국내 지역간 거래규모(단위: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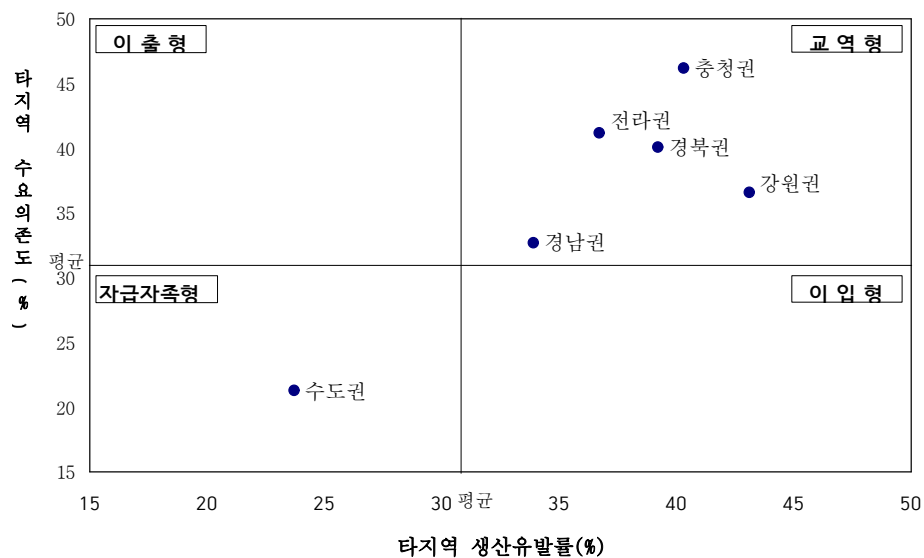


자료: 임재영(2010)

2) 충청권(광역) 전체로도 수도권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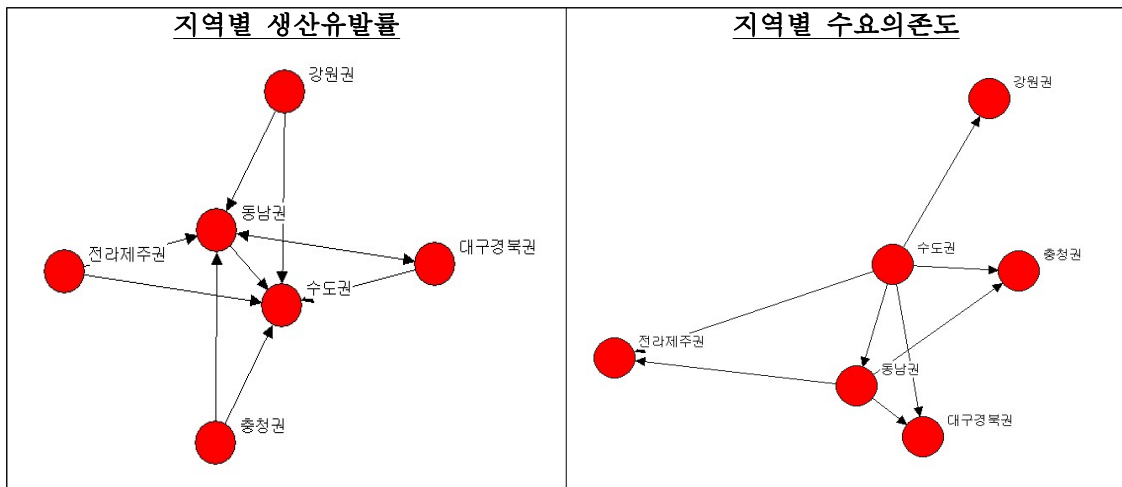
- 충남을 포함한 대전, 충북 등 충청권 경제 전체로 볼때도 충청권은 6개 광역경제권역 중 타 지역과의 상호의존도가 가장 높은 권역
 -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49.1%는 수출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고, 충청지역에서 사용된 제품 및 서비스도 48%는 수입되거나 타 지역에서 이입
 - 충청지역 민간소비액 중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중, 즉 자기 지역 공급율도 60.7%에 불과
- 특히 충청권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 이출액 중 수도권에의 판매 비중이 57.6%, 타 지역에서 충청권으로 이입되는 제품 및 서비스 중 수도권 비중이 53.5%로 타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과의 상호의존관계가 가장 큰 지역
 - 우리나라 권역 중에 자립경제권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은 수도권이 유일하며, 동남권도 어느 정도 자립성을 가지고 있으나, 충청권은 생산유발, 수요의존도 모든 측면에서 수도권에 의존도가 큰 경제.

<그림 4> 타지역 수요의존도와 생산유발률로 본 지역경제의 구조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07).

<그림 5> 지역별 생산유발률 및 수요의존도의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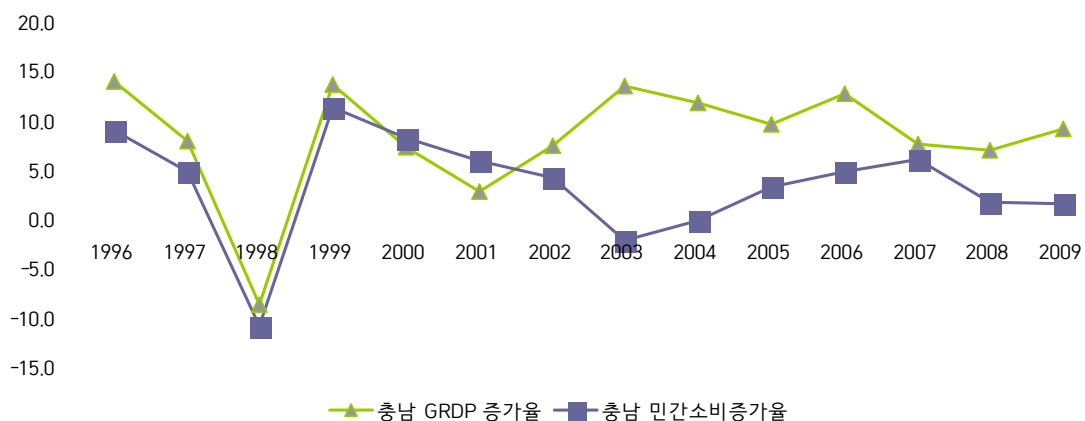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07).

2. 지역내 소비, 고용의 연계력이 낮은 경제

1) 생산-소비의 연계성 미약

- 지역내 생산활동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것과는 달리 소비활동은 장기간 부진 지속
 -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2001년 이전까지 GRDP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2년 이후 GRDP 증가율을 크게 하회
 - 이와는 달리 전국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2002년 이후도 GRDP 증가율과 유사하게 변동

<그림 6> 충남의 민간소비증가율과 GRDP 증가율



○ 이에 따라 충남지역의 GR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하락

<표 6> GRDP대비 민간소비 비중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충 남(A)	44.6	45.9	44.5	38.4	34.4	32.4	30.1	29.7	28.2	26.2
전 국(B)	56.5	57.6	57.4	55.2	53.6	53.7	53.4	53.1	52.4	52.2
A - B	-11.9	-11.6	-12.8	-16.7	-19.3	-21.4	-23.3	-23.4	-24.2	-26.0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2) 생산-고용 연계성의 약화

○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충남 고용증가율

- 2000~2008년 기간 중 전국의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1.4%씩 증가하였으나, 충남지역의 고용증가율은 동 기간 중 연평균 1.1%씩 증가하여 전국 평균을 하회

<표 7> 취업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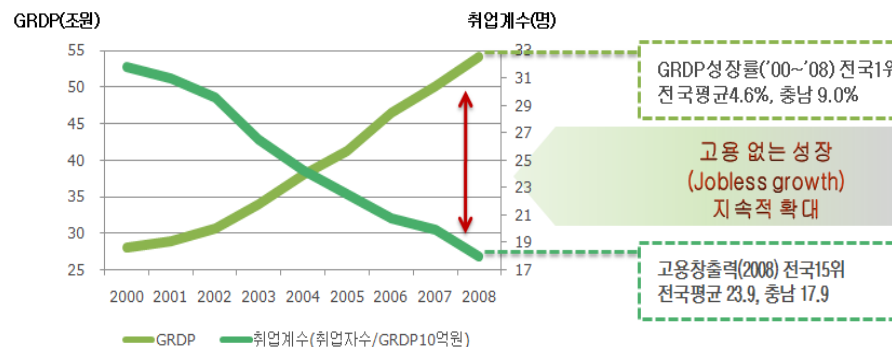
구분	2000(천명)	2008(천명)	연평균증가율('00~'08)
전국(A)	21,156	23,577	1.4
충남(B)	891	973	1.1
(B/A)*100	4.2	4.1	-

자료: 통계청(신동호, 2010에서 재인용)

○ 경제성장과 고용의 부조화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심화

- GRDP 성장률 전국 1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력 저하로 고용없는 성장의 심화(2008년 기준으로 취업계수가 전국 평균은 23.9명이지만, 충남은 17.9명)

<그림 7> 충남의 지역경제성장률 및 고용창출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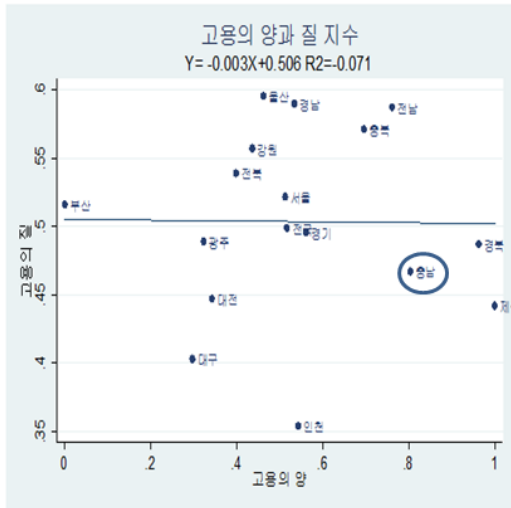
자료: 신동호(2010)

3) 고용의 질과 노사관계 면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열위

○ 전국 대비 고용률은 0.80(3위)인데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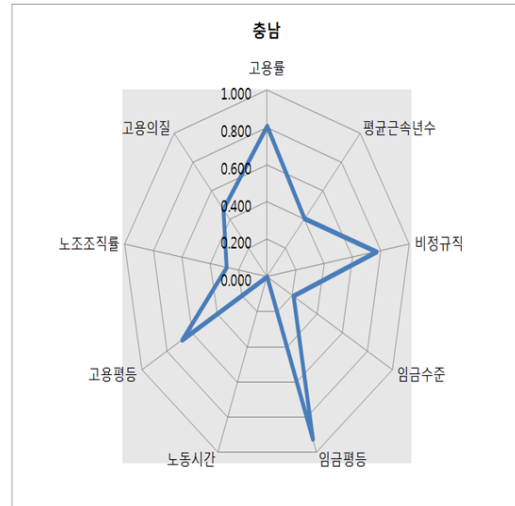
- 고용의 질은 0.47(12위), 임금수준은 0.21(11위), 노동시간은 0.00(16위)에 그침

<그림 8> 16개 광역시도의 비교



자료: 김유선(2011).

<그림 9> 충남의 고용의 양과 질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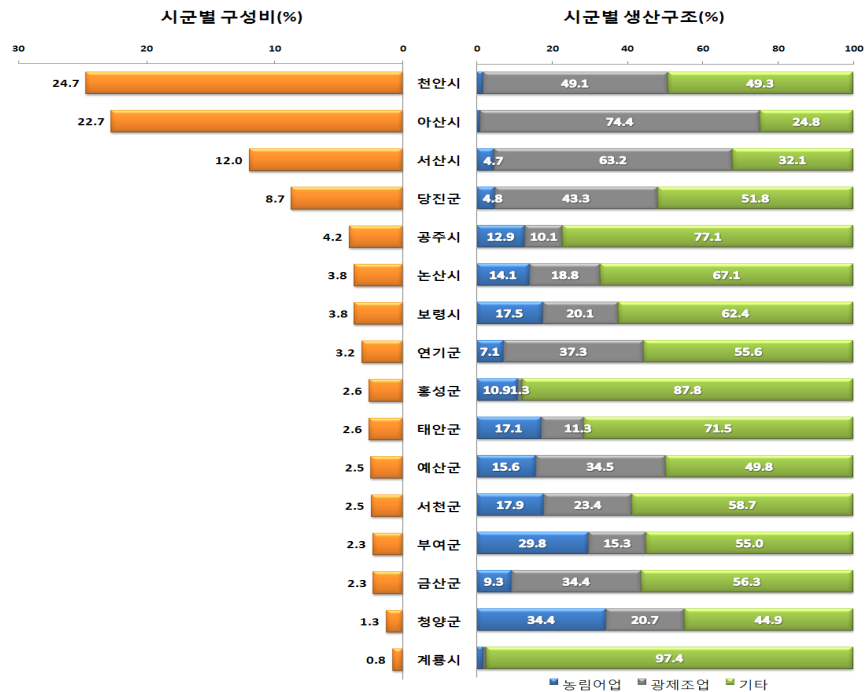


3. 지역내 불균형 성장

○ 도내 북부권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집중되어 지역간 경제력 격차 심화

-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이 GRDP 중 약 68.1%를 차지하는 반면에 나머지 12개 시군은 31.9%에 불과
- 북부권 지역은 제조업의 중심의 양적성장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침체 내지 정체
- 특히 공주, 부여, 서천, 청양 등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한미 FTA 체결 등 각종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타격 우려

<그림 10> 도내 시군별 GRDP 규모, 구성비, 생산구조(2007)



자료 : 신동호(2010)

III. 충남 경제의 과제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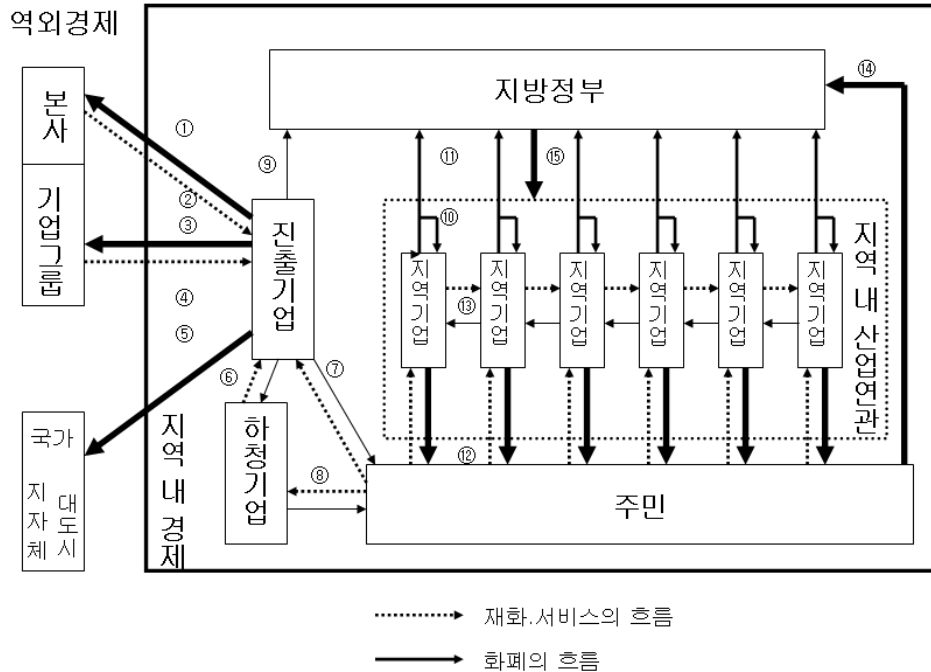
1. 역내 자립순환형 경제구축과 내발적 발전

○ 분공장 경제의 탈피와 자립 순환형 경제의 구축

- 분공장 경제의 문제점 : 진출 기업의 경우, 지역 내에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그림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부(①)나 동일 기업 그룹 기업(③)에게 소득 이전, 또는 본부 소재지 지자체로 납세(⑤)라는 형태로 역외 유출시키는 경향이 강함. 지역 내에는 임금 지불(⑦)이나 하청 기업에의 지불(⑥), 기초 지자체로의 지방세(⑨)라고 하는 형태로 자금을 순환시키지만, 이러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정리해고를 하면 그 자금 순환은 축소 · 상실됨.
- 역내 자립순환형 경제 : 그러나 지역 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산업의 순환구조가 형성되게 됨. 지역의 기업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횡적 관계를 만들어 내면 상호 거래(⑬) 속에서 일과 돈이 순환하여 고용 효과(⑫)도 세수입 효과(⑪, ⑭)도 높아짐. 이 세수입의 증가를 지자체가 지역내

에 재투자하면(⑬), 지역내 재투자력은 한층 높아지게 됨.

<그림 11> 지역내 경제순환의 경제효과



자료: 岡田知弘(2005: 172)

○ 충남 경제의 역외 소득 유출 규모의 실증

- 생산면에서 지역내 총생산는 분배면에서 지역내 총 소득에 지역 외로부터 순수취 소득을 더한 금액과 동일
- 생산면에서의 발생지 기준으로 추계되는 지역내 요소소득(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과 분배면에서 거주지 기준으로 추계되는 지역내 요소소득을 비교하면 소득의 역외 유출 규모 계산 가능(2008년부터 지역분배소득 발표)
- 충남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합한 전체 요소소득의 약 39.1%, 규모로는 약 16조 원의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어, 전국에서 전남 다음으로 높은 역외유출을 보임.
- 충청권 전체로서도 약 18조 6천억원 정도의 역외 유출이 발생(대전만 역외 유입 기록)
-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광역)에서 소득의 역외 유출이 발생하여 이것이 수도권으로 유입(수도권은 약 73조원의 역외 유입)

<표 8> 지역별 역외 소득 유출(또는 유입) 현황(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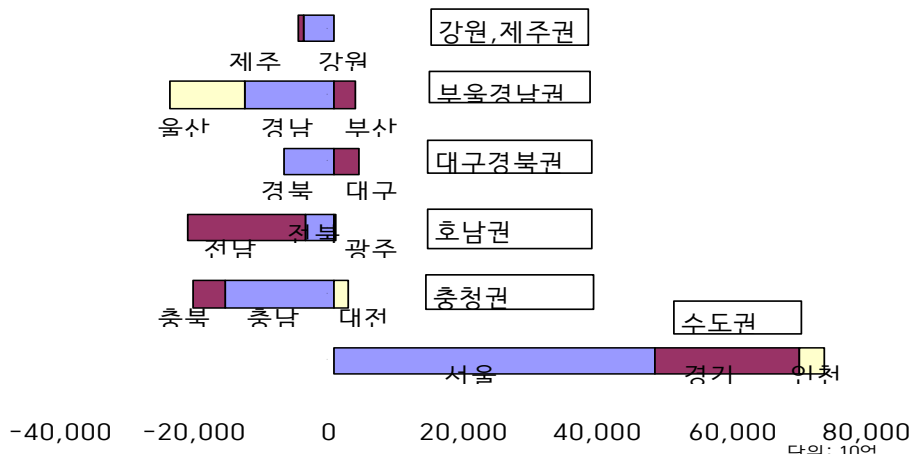
(단위 10억원, %)

수도권	권역 합	서울	경기	인천
	73,030	47,883 24.3%	21,625 14.4%	3,521 10.1%

충청권	-18,567	충남	충북	대전
		-16,046	-4,746	2,225
		-39.1%	-21.2%	12.1%
호남권	-21,299	전북	전남	광주
		-4,028	-17,743	472
		-17.8%	-49.3%	2.7%
동남권	-3,379	경북	대구	
		-7,281	3,901	
		-14.2%	15.4%	
부울경권	-20,937	경남	부산	울산
		-13,098	3,285	-11,125
		-22.9%	7.4%	-32.9%
강원제주	-5,326	강원	제주	
		-4,341	-985	
		-21.5%	-14.2%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에서 계산

<그림 12> 권역별 소득의 역외 유출현황



○ 높은 소득 역외 유출의 이유

- 충청지역의 주력산업(제조업)인 화학,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등의 업종은 지역내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 정도가 평균치를 하회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하며,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의 경우 전후방 연쇄효과가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
-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이 경기도 기흥사업장 등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조립하여 수출하고, LCD, PDP 등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우 유리기판을 제외한 대부분 부품을 역외에서 조달¹⁾

1) 디스플레이 산업의 장비 및 부품공급 구조는 국산율이 매우 낮고 대부분을 해외의존(특히 PDP 관련은 거의 해외조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국내 조달의 경우 최종 메이커를 중심으로 1차, 2차 하청기업의 강한 수직계열 체제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충남지역 소재 부품 조달비중은 불과 15%에 불과하다. 구체

<표 9> 주요 소재·부품의 충남지역 조달비중¹⁾

(%)

	소재·부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충남지역 조달 비중
백 라 이 트	25	10
구 동 IC	20	-
유 리 기 판	10	90
컬 러 필 터	10	-
편 광 판	10	-
액 정	5	-
기 타	20	15
계	100	14.5

주 : 1) 2003년중 금액기준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04.11)

- 또한 자본집약적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하여 부가가치중 지역민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용자보수 비중이 전국보다 크게 낮은 데다 아산 현대자동차, 탕정 삼성전자 등 지역소재 대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하여 영업잉여의 상당부분이 역외로 유출

2. 과제 1: 중소기업, 농업·농촌, 사회적 경제 부문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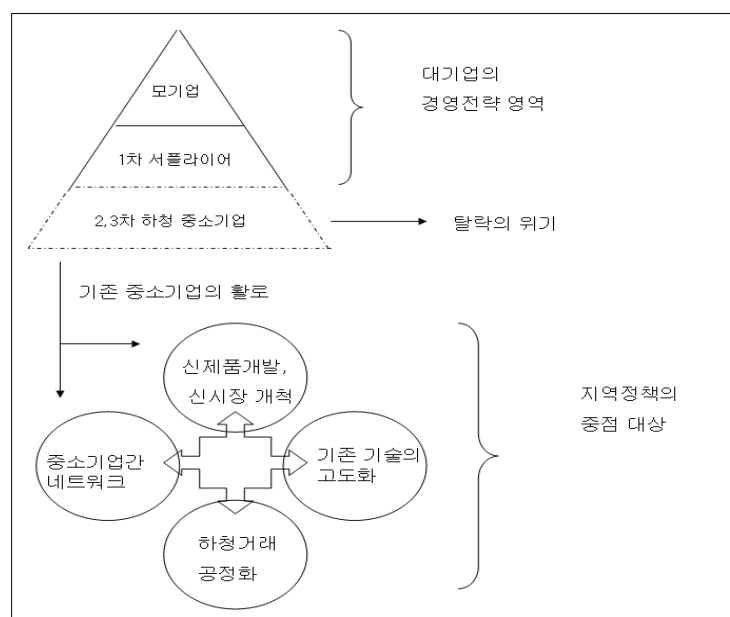
- 1)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의 질적 순환형 경제로
 - 대기업 중심의 외생적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내실있는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 동반성장 체계 구축 및 하청중소기업의 자립화 도모
 - 대기업의 지역공헌도 제고 및 대기업의 본사 및 연구개발 기능 지역내 입지 유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의 강화
 - 충남도에서는 현재 ‘충청남도 동반성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약 50개 기업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도모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지역내 조달율 및 지역공헌도 제고 등을 지역산업 정책의 주요 지표의 하나로 선정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함.

적으로 삼성이 충남에서 공급받는 장비 업체 및 부품관련 업체를 보면 유리기판은 삼성 코닝, 백라이트는 태산엘시디, 한솔 LCD, 대성전자에서 조달하며, 주로 종업원 2,500명 이상의 대기업으로서 삼성과 하청계열관계에 있거나 거래 독점성이 강한 몇몇의 대기업이다.

2)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지역산업정책으로 재편

- 현재 선도·전략산업 육성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분리되어 있는 정책추진체계를 통합적 운영 구조로 전환
 - 선도산업은 광역선도산업지원단, 전략산업은 TP, 중소기업은 도, 중기청, 중진공, 신보, 경제진흥원 등으로 분산된 기업지원기능을 종합적,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현재 디스플레이,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 및 부품산업 등 특정 산업으로 지원 타켓이 정해져 있는 지역산업 전략의 목표를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변경
 - 중소기업의 존속형태 심층 조사→ 발전단계별, 대기업과의 거래형태별, R&D 활동 단계별 지원전략과 맞춤형 수단 강구
- 지방중소·영세기업,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내 호순환(지역 순환형 경제)형성
 - 모기업의 분산화에 의한 하청기업으로서의 체질강화와 안정성 향상(기업전속기술에서 벗어나 다품종소량생산의 강화), 모듈화에 대응(제공도 기업에서 승인도 기업으로), 계열에 참여기회 확보
 - 새로운 사업분야의 창출 및 자사제품의 개발에 의한 자립화 지향, 독자 제품생산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 형성
 - 현재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충남형 강소기업 육성책’도 단순히 30개 업체(2011~2014년까지)를 선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강구

<그림 13> 지역산업 정책의 중점분야



3)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를 감안할 때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중요
-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명/10억원)는 각각 56.6 및 160.2로서 제조업의 취업계수 6.9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들 부문의 육성이 긴급요

<표 10> 충남의 취업계수(2008)

(단위 10억, 천명)

	GRDP (10억원)	취업자수 (천명)	취업계수
전 산 업	50,637	961	19.0
농 립 어 업	3,199	181	56.6
광 업	187	1	5.3
제 조 업	23,587	163	6.9
건 설 업	4,733	56	11.8
서 비 스 업	3,496	560	160.2

자료: 통계청

4) 사회적 경제의 육성

-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cooperatives), 공제조합(mutual societies), NPOs, 공동체 회사(collective enterprises) 등 정부와 시장 영역 중간에 호혜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는 연대체
- 최근 각국에서 일자리 창출,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 민주적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조직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 중시
- 우리나라에서도 부처별로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 중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의 자립형공동체(=마을기업)육성사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 농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등
- 충남도도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기업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2010년 17개에서 2011까지 50개, 2014년까지 2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지정, 육성할 계획임.

- 그러나 단순한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둔 사회적 기업 육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공으로서 보다 넓은 개념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발전 단계별 지원제도 정비
 - 지역내 우선 구매 등 사회적 경제 시장의 형성
 - 전문인력 양성 및 중간지원조직 형성 등

3. 과제 2: 자립 광역경제권 형성 및 낙후지역 발전

1) 자립 광역경제권 형성

- 수도권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고 충청권 자립 경제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충남, 대전, 충북의 협력 연계를 강화하고 자립 광역경제권 창출 모색 필요
- 이명박 정부에서도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
 - 충남의 기존 전략산업 육성 사업이나, 충남 테크노파크 등 기존의 지역 산업 추진 체계들과는 무관하게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이나 기존 사업 주체와의 연관성이 부족
 -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충청권 3개 시도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광역경제권 사업의 원래 목적인 광역적 차원의 효율성 증대보다는 충청권 3개 시도간 1/3씩 나누어먹기 식으로 사업이 분배
 -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지원체계와 광역발전위원회 사이의 모호한 관계 설정
- 광역권 창출의 과제
 - 중앙정부의 광역사업의 권한과 재원을 각 시도에 대폭 이양, 분권화
 - 3개 시도의 이해가 일치하는 공동의 사업을 3개 시도 민관이 협력하여 발굴(3개시도 공유이익 창출이 큰 분야,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에서 공동협력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방안을 도출)
 - 광역권 내 협력의 거버넌스 형성: 일본의 경우 광역권 산업 육성 비전 마련 →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 → 광역 거버넌스 기구로 일종의 사무조합인 광역연합 구축
 - 중장기적으로 대전과 충남의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도 검토
 - 현재 설립 운영 중인 '충청권 경제포럼'에서 이런 것들을 내실있게 토론, 대안 마련

2) 낙후지역 균형발전 도모

○ 낙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 농촌발전 계획 및 충남형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

※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안

- 단계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1단계 사업(start up) : 아이디어 발굴 및 마을계획 수립 사업, 마을 당 200만원내외 지원(예비마을 역량강화교육과 병행하여 진행)
- 2단계 사업(step up) : 주민주도 소규모 TRY 사업, 2000만원 내외 지원(마을 경관사업/ 고령자 복지사업/ 특화상품 개발 등 소득사업/ 도농교류 농촌체험관광/ 도시민 유치사업/ 인근 마을간 연대협력 사업 등)
- 3단계 사업(jump up): 주민주도 중규모 사업 : 마을당 4억 내외(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형성, 로컬푸드 등과 사업 연계,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활용),

- 종합적, 체계적 지원체제 구축

-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마을만들기 관민 지원센터 설립 등
- 기존 마을 대상 각종 정부사업의 종합화, 체계화(선택과 집중, 사업간 연계)

○ 지역여건을 반영한 선별적 기업유치 및 기업 이전 차등보조금 제도 운영

- 국내기업 유치의 서북부지역 쏠림 현상 개선, 낙후지역으로 기업유치 확대를 통한 도내 균형발전 실현
- 보조금 우선 지원지역(성장촉진지역, 도청이전 신도시 등)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기업 이전시 보조금 지원 우대 및 보조비율 상향 조정

참 고 문 헌

김유선(2011), 한국의 노동 2011, 충남도 내부 세미나 발표자료

박 경(1998),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전략의 실상과 과제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 2호.

신동호(2010), “충남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충남리포트〉제41호(2010-13: 2010.8.16), 충남발전연구원.

임재영(2010),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충남리포트〉제42호(2010-14: 2010.8.19), 충남발전연구원.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http://www.kosis.kr>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04), 충남지역 디스플레이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07), 대전충남지역 전략산업의 현황과 과제, 2007년 한국은행 지역경제세미나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07), 충남지역산업연관 분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08), 충남지역 경제구조의 특징과 발전방향.

岡田知弘(2005), 地域經濟學入門-地域內 再投資力論,自治體研究社.

<부 표 > 충남경제의 주요 지표

지 표 명		규 모	시도 순위	기준 시점	비 고
지역내 총생산(GRDP)		58.2조원	5	'08. 12.	전국 1,032조원(5.6%)
GRDP 성장률		6.3%	1	'08. 12.	전국평균 2.4%
1인당GRDP		2,996만원	2	'08. 12.	전국평균 2,122만원
산업 구조	농림어업	6.4%		'08. 12.	전국 2.5%
	광업, 제조업	47.0%		'08. 12.	전국 28.3%
	건설업	9.2%		'08. 12.	전국 7.0%
	서비스업, 기타	37.4%		'08. 12.	전국 62.2%
15세이상인구(A+B)		1,612천명		'10. 6.	전국 40,572천명
.경제활동인구(A)		1,037천명		'10. 6.	전국 25,158천명
-취업자 수		1,015천명		'10. 6.	전국 24,280천명
-실업자 수		22천명		'10. 6.	전국 878천명
.비경제활동인구(B)		575천명		'10. 6.	전국 15,415천명
.경제활동참가율		64.3%		'10. 6.	전국평균 62.0%
.실 업 률		2.1%		'10. 6.	전국평균 3.5%
.고 용 률		63.0%		'10. 6.	전국평균 59.8%
사 업 체	제조업체(1인 이상)	11,656업체	8	'08. 12.	전국 320,053업체
	.대 기 업	67업체	5	'08. 12.	전국 629업체
	.중소기업	11,589업체	8	'08. 12.	전국 319,424업체
산업단지 지정면적		136개단지 108,118천㎡	6	'10. 6.	전국 831개단지 1,365,986천㎡
지역특화발전 특구		16개소		'10. 6.	전국 139개소
중소기업육성자금		1,979억원		'10. 6.	대출잔액 9,169억원
전 통 시 장		75개소		'10. 6.	전국 1,550개소
지역발전량		107천MW		'10. 6.	전국 422천MW ※ 25.4% 점유
도시가스 공급률		42.5%		'10. 6.	전국평균 73.0%

자료 : 충청남도 경제통상실